

서울 강남구 논현동

조원희 '서울 이랜드 4위 주역' 은퇴 후 팬과 적극 소통

배재고를 졸업하고 2002년 울산 현대에 입단해 프로 무대를 밟은 조원희는 우측 측면 수비와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를 모두 소화 가능해 일찌감치 주목받았다.

광주 상무(현 상주 상무)를 거쳐 2005년부터 수원 삼성(수원)에서 우측 측면 수비수로 활약하며 이듬해 3월 수원 팬들이 뽑은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다. 당시 조원희는 "더욱 열심히 하라는 팬들의 바람으로 알고 올 시즌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조원희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2008년에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K리그 베스트11에도 뽑히는 등 수원의 주축 선수로 활약했다.

국가대표로도 뛰며 디 아드보카트 전 대표팀 감독의 눈에 들어 많은 A매치에 출전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A매치 36경기에 출전해 1골을 기록했다. 특히 데뷔전이었던 2005년 10월12일 이란과 친선경기에서 경기 시작 59초 만에 결승골을 넣



논현동양파라곤

어 1979년 이후 국가대표팀 내 최단 시간 득점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2006 독일월드컵 대표 명단에도 들었지만 분선에서 송종국과 라이트백으로 전

향한 이영표에 밀려 출전 기회를 받지 못해 아쉬움을 삼켰다.

2009년 1년간의 임대로 위건 애슬레틱으로 이적하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진출의 꿈을 이뤘다. 하지만 이적 후 단 4경기 출전에 그치며 아쉬운 활약을 보였고 결국 약 1개월 만에 다시 수원으로 복귀했다.

복귀 이유에 대해 그는 "2010 남아공월드컵 본선 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경기를 뛰어야만 한다는 결심으로 수원 삼성 임대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토록 비대한 2010 남아공월드컵 출전은 좌절됐고 결국 독일월드컵이 마지막이 됐다.

2011년 광저우 에버그란데를 시작으로 우한 줌얼, 오미야 아르디자 등 중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 뛰었다. 2014년 임대로 경남FC에 입단했고 2015년 서울 이랜드 이적 첫해 K리그 챌린지(현 K리그2) 베스트 11에 선정되며 신생팀 서울 이랜드를 리그 4위에 올린 주역으로 인정받았다.

2016년 다시 친정팀 수원으로 돌아와 마지막 투혼을 불사랐다. K리그 우승 1회, FA컵 우승 2회 등 총 7개 대회 우승에 기여했다. 2019년 3월 수원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은퇴했지만 반복해 2020년 7월 1년 4개월여만에 K리그2 팀이었던 수원FC의 플레이코치로 영입돼 그라운드로 돌아왔다.

입단 당시 수원FC가 1부리그(K리그1)로 승격할 경우 자신의 연봉 일부를 유소년 발전기금으로 내놓겠다고 승격 공약을 제안했는데 실제로 이뤄져 유소년 팀에 2000만 원을 기부하는 약속을 지켰다.

한편 2021년 초 플레이코치까지 그만두고 현역에서 안전 은퇴한 조원희는 방송인, 유튜버, 축구 해설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제2 전성기를 맞고 있다.

'골든일레븐' '슈퍼 DNA 피는 못 속여' '전설거리 출신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예능감을 드러냈으며 JTBC3



조원희

前 축구선수

KBS

FOX Sports 해설위원, KBS 해설위원 외에도 2020년부터 유튜브 '이거해조 원희형' 채널을 개설해 팬들과 소통하며 축구 콘텐츠를 만드는 데 매진하고 있다.

현재는 축구 예능 '몽쳐야 찬다2'에 출연해 코치로서 선수들의 특점력 강화 특별 훈련을 시키며 가장 발전을 돕고 있다.

축구 콘텐츠로 다양한 매력 선보이는 조원희의 부동산 재력이 관심이다. 그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논현동양파라곤 한 호실을 2016년 8월 19억1000만 원에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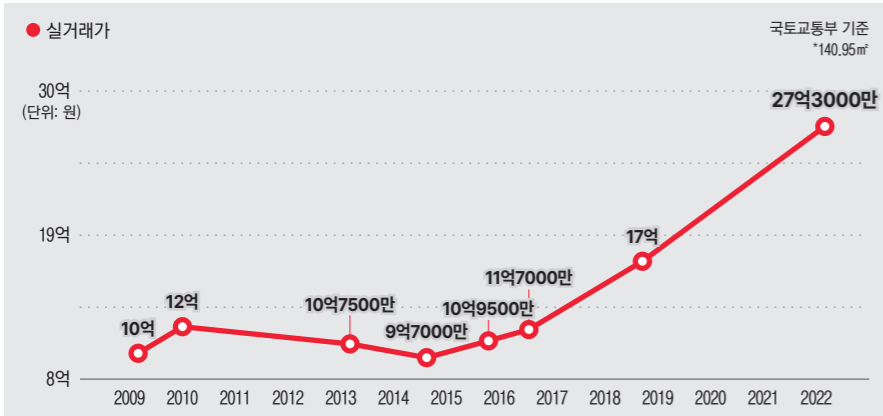
입했다.

2004년 준공된 논현동양파라곤은 지하철 7호선, 수인분당선 강남구청역 인근에 있는 고급 아파트로 호텔식 커뮤니티 시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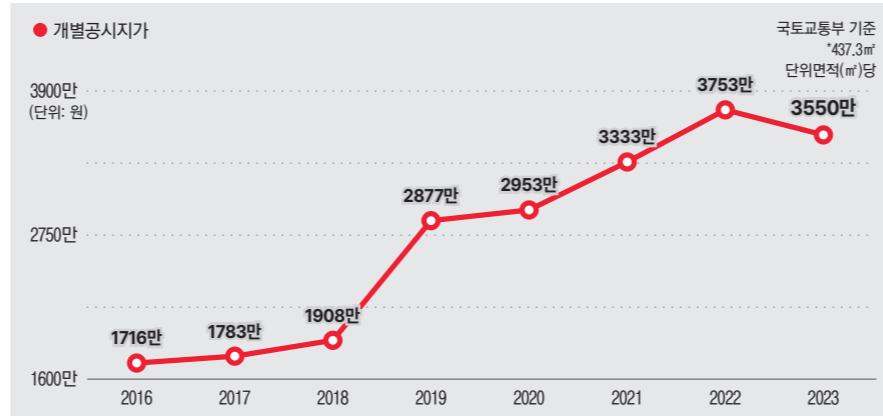
소유 호실은 공급면적 192.35㎡(약 58.18평), 전용면적 157.41㎡(약 47.61평) 규모로 동일 면적 호실이 올해 5월 36억 원에 거래돼 상당한 시세 차익을 보고있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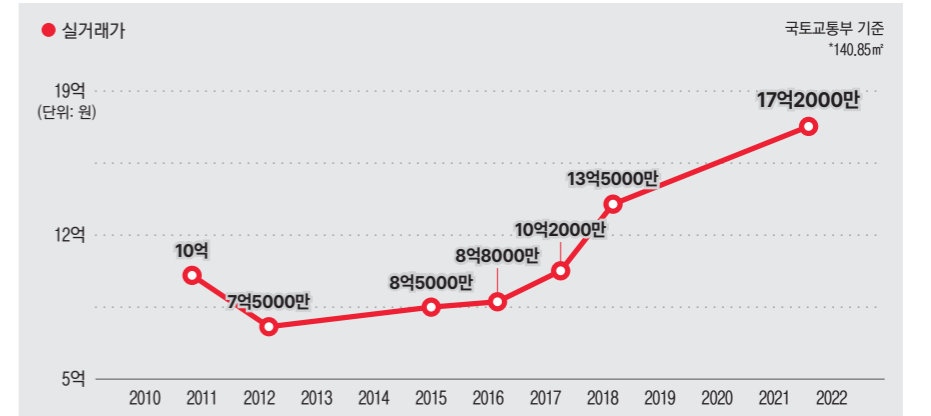
동현아파트



H타워(호시기타워)



강남파라곤



김지호

헌배우



김지호는 1994년 가수 신승훈의 '그 후로 오랫동안'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가을동화' '겨울연가' '여름향기' '봄의 왈츠' 등 계절 시리즈로 유명한 윤석호 PD의 청춘드라마 '사랑의 인사'에 조연으로 캐스팅돼 지적되면서 여성스럽고 동시에 보이시한 매력을 겸한 매력에 시청자를 물입시켰다. 인기에 힘입어 1995년 당대 최고의 흥행 보증수표 박중훈과 함께 영화 '꼬리치는 남자의 주연으로 발탁됐다. 이후 각종 프로그램의 섭외 1순위로 떠올랐으며 MBC 예능프로그램 '젊음의 대서 마당'의 MC를 맡았고 여러 CF 광고모델을 맡아 CF퀵으로 불렸다. 2000년 MBC 주말연속



헌배우

극 '사랑은 아부나 하나'에서 공연한 김지호와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에 골인했다. 혼인 뒤에도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해 2001년 드라마 '로얄 유리구두' '돌아온 신랑' '그래도 좋아' '여자를 몰라' '참 좋은 시절' '가화만사성' 등에 출연했다.

최호식

전)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은 1999년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을 창업해 사업에 첫 발을 디뎠다. 치킨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닭 튀기 기부터 시작해 소스 만드는 방법까지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습득했다. 이후 창업한 호식이두마리치킨은 한 마리 가격에 두 마리를 제공한다는 다소 과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고객에게 입소문을 뒀다. '두 마리 치킨의 원조'로 불리며 치킨업계에 돌풍을 불러 일으킨 대구 향토기업 호식이두마리치킨은 대구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최 전 회장이 2017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20대 여직원과



헌배우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는 '여직원 성추행' 사건을 일으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

윤형석

헌배럴즈 대표이사



윤형석 배럴즈 대표이사는 인기 의류 브랜드 커버넌트와 마크곤잘레스 등으로 유명한 배럴즈를 이끌고있다. 2014년 8월 설립한 배럴즈 제품 기획부터 디자인-생산-유통-판매 등 사실상 의류 판매의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며 회사를 키웠다. 온라인몰은 물론 로드숍, 백화점, 쇼핑몰입점,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형태로 의류를 판매해 성장했다. 패션에 관심이 많아 관련 전공을 선택하고 싶었으나 부모님 뜻에 따라 경영을 공부했다. 패션 관련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옷을 너무 좋아해 25세에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으며 이후 일본에서 패션 공부를 시작했다. 외국에서 친구



헌배우

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물건을 파는 일을 하면서 옷 판매업에 대한 꿈을 키웠다. 2008년 패션 브랜드 '커버넌트'를 런칭하고 디렉터로 일하며 결국 배럴즈 대표의 자리까지 올랐다. 커버넌트는 다루다는 의미의 '커버(COVER)'와 바늘과 실(Needle and Thread)을 의미하는 'нат(NAT)'의 합성어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95개 지구 2만1000필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도내 95개 지구 2만1000여 필지(14.5㎢)를 대상으로 국비 46억 8000만 원을 들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준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 토지 경계를 분명히 해서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모양의 토지를 정형화할 수 있으며 진입로가 없는 땅지는 경계 조정으로 도로를 확보해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도는 4월 초 의정부시 본자일2지구 등 15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이달 14일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 결을 받은 화성시 북양1지구 등 49개 지구를 고시했다. 미지정 사업지구는 9월까지 모두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올해 도내 95개 지구 2만1000여 필지(14.5㎢)를 대상으로 국비 46억8000만 원을 들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사군·구에서 사업예정지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도에 신청하면 도가 위원회를 개최해 지정한다. 사군·구에서는 토지현황조사·측량·경계 조정 및 정산절차를 거쳐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 정리 및 등기가 진행된다. 토지소유자는 측량 비용이나 등기 비용에 대한 일체의 부담이 없다.

2023년 경기도 지적재조사지구는 실시

계획을 수립하기 전인 지난해 8월부터 수원시 등 30개 사군 사업담당자들과 사업효과·지적불부합 정도·사업 우선순위 대상지구 설계 적정여부 등 사전 검증을 마쳤다.

고종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분쟁에 따른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중안동 공영주차타워 220면 내년 상반기 준공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는 진주경찰서·진주우체국·진주 중앙요양병원·진주교육지원청 등 주차밀집지역인 중안동에 공영주차타워 건립을 위해 지난달 20일 기존건축물 철거공사에 들어가 내달 말까지 철거가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안동 공영주차타워는 원도심의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과 인근 상권, 공공행정기관 방문자들의 주차 편의 및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선 7기 조규일 시장의 공약사업인 '주말밀집지역 주차공간 확보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행정절차를 진행해 올해 4월 민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부지를 매입했으며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달 제안 공모로 진행된 '진주시 중안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의 설계공모 심사 결과 최종 당선자로 코어



조규일 진주시장이 17일 철거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진주시

건축사사무소를 선정했다. 시는 당선작에 설계권을 부여해 올 9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안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은 보상비 포함 총 사업비 165억 원을 투입해 지상 3층·4단·연면적 5500㎡·주차면 220면 규모로 건립된다.

시 관계자는 "특히 중안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은 단순한 주차공간 제공

이 아닌 도시미관 증진은 물론 도시공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규일 시장은 17일 철거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철거 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현장 관리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